

# 역사 밖으로 걸어나온 '원효대사' 소설화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 1·2

김선우 지음 | 민음사 펴냄 | 각권 1만 3천원



이 책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자 날카로운 산문가 그리고 통찰력 있는 소설가이기도 한 작가 김선우의 네 번째 장편 소설이다. 소설 <발원>은 원효와 요석의 사랑 그리고 당시 신라의 사회상과 원효의 사상을 공중제비를 도는 주령구처럼 균형감 있게 다룬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선우 특유의 유려하고 뽀시 있는 문장은 소설의 읽는 맛을 더해 주며, 드라마틱한 이야기 전개와 영화적 상상력은 당시 서라벌을 눈앞에 온전히 펼쳐 놓는다. 왕이나 귀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불국토를 꿈꾸었던 원효, 그리고 요석. 소설을 읽는 독자는 원효와 요석이 나는 1400년 전의 사랑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의 갈등과 번뇌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작가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다른 여지가 없을 만큼 김선우가 써야 할 이야기였고, 오로지 김선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며, 김선우가 기어코 해낸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살아난 원효, 다시 깨어난 서라벌 원효의 일대기는 후대의 필요에 따라 각색되거나 축소, 과장되었고 이 또한 그 수가 많지 않다. 때문에 원효의 삶은 우리에게 피상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저자는 시인 특유의 유려한 문장과 드라마틱한 이야기 전개로 역사 속 인물 원효를 우리 곁에 인간 원효로 탈바꿈시킨다. 또한 원효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는 요석 공주 또한 주변부 인물이 아닌, 운명에 맞서는 당당한 여성으로 그려 낸다.

작가의 손끝에서 원효와 요석은 오랜 전쟁과 지배층의 수탈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하는 '부처의 마음'과 존재와 존재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구원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지닌 입체적 인물로 생생하게 살아난다. 섣덕여왕과 김춘추, 의상 등의 실존 인물과 작가에 의해 탄생한 여러 인물이 서라벌을 배경으로 작가의 문장에 걸음을 맞춘다. 그들의 걸음은 간혹 비장하고도 경쾌한 춤과 같아서, 책장을 넘기는 박자를 가볍게 한다.

인물뿐만 아니라 공간 또한 <발원>의 세계관 안에서 다시 탄탄한 생명력을 얻는다. 황룡사와 분황사, 첨성대와 같은 실제 배경뿐만 아니라, 아미타림 등의 상상적 공간까지도 원효와 요석의 궤적에 의해 신라인의 숨결이 묻어 있는 왕경, 즉 서라벌로 다시 구성되고 일어선다. <발원>을 읽는 것은 신라 시대를 살아 내는 것이며, 원효의 목소

리를 직접 듣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혼탁한 세상, 모두가 부처인 세계 발원하다 이렇게 소설 <발원>을 통해 살아난 원효와 요석 그리고 서라벌은 끝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백성의 고통은 정녕 멈출 수 있는가. 진실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원효 대사는 딱히고 갈라져 서로 대립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는 세계로, 한 몸처럼 세상과 만나는 세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우리는 부처이자 곧 중생이고, 타인

### 김선우 작가의 네번째 장편소설

### 원효의 사상과 사랑 옷옷이 담아

### 원효와 요석 입체적 인물로 재탄생

### 단아한 문장과 화려한 전개 돋보여

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기도 하며, 당신의 사랑은 즉 나의 사랑이다. 철학자 강신주는 작품 해제에 이렇게 쓴다.

"왕이나 귀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불국토를 꿈꾸었던 원효, 사랑과 자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내어 주어야 한다는 걸 알았던 원효. 김선우 작가는 너무나 근사하게 매력적인 드라마를 만든 것이다. 어느 육두품 출신 영민했던 소년이 어떻게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여백 원효가 되어 가는지, 요석이 원효에게 어떤 인연의 여인네였는지,

진정한 자비는 국가와는 무관하게 중생들 마음 하나하나를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 때로는 안타까움에 탄식하게, 때로는 섣시한 떨림을 주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정말로 근사하게 이 책은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색깔의 파문을 만들어 낸다."라고.

김선우의 <발원>은 원효와 요석 그리고 신라의 수많은 민초들을 비추는 유리창이 자지르 우리 시대의 오래된 청동거울이다. 이 책을 통해 되돌아본 우리 모습 뒤로, 우리는 어떤 간절한 발원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든, 소설은 이미 당신에게 스며 들어간 후일 테다. 이렇듯 <발원>은 우리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의 삶을 통해 오래되고 동시에 새로운 호소를 독자에게 설파하는 참이다. 우리는 혼탁한 세상에 온몸으로 스미는 이 소설에 귀를 기울여 설복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저자 김선우 작가는?

1970년 강원도 강릉서 태어났다. 1996년 <창작과비평>에 <대관령 옛길> 등 10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나를 춤이다> <캔들 플라워> <몸의 연인들>과 시집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 <도화 아래 잠들다>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가 있다. 청소년 소설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산문집 <물 밑에 달이 열릴 때>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당신이 물었다>, 그 외 다수의 시해설서가 있다. 현대문학상과 천상병시상을 수상했다.

### 저자 제운 스님은?

시인이자 선학자다.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법주사 법어사 등서 수행했다. 법어사 승가대학서 사교과정을 이수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학을 전공했다. 조계종 직할 적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합천 보림사 주지이며 경기대일리 객원 칼럼리스트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너는 금생애 사람노릇 하지 마라> <달마산책> <내 마음의 이야기> 등이 있다.

## 時와 禪은 하나다... 구도자의 고뇌 표현

### 시선일여

제운 스님 지음 |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 2천원



"이 분상에선 너와 내가 없고 식견의 유무와 분별이 끊어져 고요 그 자체여라/들이 아닌 경계 성성삼매에 들어 범은 성으로 인하니나 경계는 한발짝이다/달마 앞에 선 푸른 계도 흰 눈발에 혈화로 초조의 심인 얻은 해가 중생은 본시 부처다하는 승찬/우두산 바라보며 마음자리 찾는 도신 황매산에서 삼세재불도 알지 못합니다는 도신을 닮은 흥인이아라...<중략> <달마의 향기> 중에서

"정지된 어둠 가늘게 떨려오는 한 빛이 켜

든 마음을 달랠다./깜빡이듯 스치는 은화한 불상 속 나는/줄지어 나르는 기러기 때 쫓아 여린 끈을 놓을 세라/이 밤 하얗도록 시름에 잠 못 이루고 어둠 뚫고 멀리 들려오는 개짖는 소리/뚝뚝 떨어지는 침묵이여."

<참목> 중에서

제운 스님의 시는 단순한 운문을 넘어 선적인 가르침을 주는 선시들이 많다. 그래서 읽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낀다. 화가 인생을 화폭서 말한다면, 시인은 글을 통해 인생을 노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가 이번에 발표한 글들은 시인의 감성으로 사물을 대하면서, 시인의 감성으로 사물을 비평하고, 시인의 감성으로 그것을 인지하면서 수행자라는 조건반사(條件反射)를 기억하고 내세우기도 했다. 여기서 '조건반사'란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 행동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때론 세속에서 동화되기 어려운 환경을 보이고, 세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시로 옮겨지기도 했다.

제운 스님의 시집 "시선일여"는 '시와 선이 하나다(詩禪一如)'라는 정식으로 썼다. '시'라는 글을 풀면 '절에서 쓰는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절이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수행이란 주로 참선(參禪)을 말한다. 선을 한다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시' 또한 생각을 가지런히 해서 언어를 간추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총 4부로 이어져 지혜(智)와 연정(情) 그리고 만행(行)과 깨달음(禪)으로 이어지는 구도자의 고뇌가 시를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저자는 "고단한 삶의 형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만 지나간 시간은 가버린 추억마냥 아련해서 우리의 뇌리 속에 별로 남아 있지 않기에 오늘 이 현실에 괴로워하

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며 "인간을 흔히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이 생각을 한다는 이것이 스스로의 자존을 가지게도 하지만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될 많은 고뇌를 만들어 스스로 고의 사슬이 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영장의 슬픔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경전 이 장 우』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흥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참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미선원장 대행 선사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가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갈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권(인쇄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당허(唐虛, 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원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중(五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맥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미타(사)와 위빠사나(觀) 동시에 되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검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갈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인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검 거사님 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통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論)',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도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지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